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8pm
	IMAN	나정우/찬미	금 6:30pm
	MK	김민수/미숙	안식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금 7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7pm
자매	레바논	김명제/은경	주일 7pm
	요르단	이광석/진희	금 6:30pm
	샤론	손국자	금 6:30pm
	터키	황순옥	화 11am
다문화	기니	강교현	화 12pm
	ACA	김행자	금 10am
다문화	나진	김영숙	월 4pm
	미정	김남우	미정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0/7	10/14	10/21	10/28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전체 식사	-	-
어린이 돌봄	이윤선, 박주애 /장경민, 나찬미	세대모임 식사(Youth)	문화 축제	선교 축제
주차 봉사	Rick Geib/대호	Chris Steenkolk/이장춘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예배 안내	기니/ACA (10월) & 나진/김남우 (11월)			



VILLAGE
CHURCH
villagebeaverton.com
kf.vbconline.org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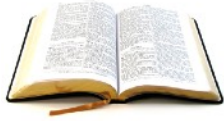
Responding in Worship

살롱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정의와 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본문: 이사야 1:27
이사야 58:6-8
미가 6:8
설교: 켄 와이츠마 목사

이사야 1장 27절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8장 6-8절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미가 6장 8절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생각하여 그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의”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또는 사회 운동의 하나로 여기고 복음과는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정의와 의는 둘다 하나님,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및 세상의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맞서서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정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경 구절은 2,000개 이상입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 1,100개, 사랑에 관한 구절 700개인 것에 비해 두, 세 배나 됩니다. 정의와 의를 제한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순수함과 도덕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와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환영합니다

오늘 빌리지를 처음 방문하셨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모이는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으로 초청드립니다.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느낀 생각과 감동을 중심으로 사귀는 모임입니다. 체육관은 남쪽으로 옆건물 아랫층에 있습니다.

2. 다음주 한인 헬로우업 (10/14)

다음 주일 한인 헬로우업에서는 점심식사가 있으며, 세대모임별로 참석합니다.

3. 목자모임 (10/13)

빌리지 한인부 목자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0월 13일 (토) 7-9pm
- 장소: Columbia A

4. 빌리지 문화 축제 (Celebration of Cultures, 10/21)

히스패닉 헬로우업 주최로 온 빌리지 성도들이 함께 하는 문화 축제가 오는 10월 21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체육관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나라와 문화들의 음식을 나누고, 즐기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음식 Booth도 있으니 음식 준비와 행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지체들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동명 형제 or 이현복 자매). 당일엔 한인 헬로우업으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일시: 10월 21일 (주일) 12:40pm
- 장소: 체육관

5. 빌리지 어린이 Global Fair 자원봉사자 모집 (10/14)

오는 10월 14일 (주일)에는 빌리지 어린이 사역에서 Global Fair 행사가 있습니다. Global Fair는 빌리지 선교대회 (Mission Celebration)의 일환으로 빌리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체험하도록 돕는 일일 행사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Booth도 마련되며 (예: 제기차기, 부채 만들기 등) 이를 위해 다음과같이 당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한인 성도님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10월 14일 (주일) 8:45am 예배 (2명); 11am 예배 (3명); 5pm 예배 (2명)
- 문의: 김윤진 자매 (어린이 사역 코디)

6. 한인부 음향팀 구인

한인 수요일예배시 음향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추가 모집합니다. 관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문의: 강교현/배은희 자매).

7. 한인부 자막팀 구인

한인 수요일예배시 PPT 제작 및 운영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추가 모집합니다 (문의: 강교현/배은희자매).

8. Village Nursery 유급 사역자 구인

빌리지 Nursery (유아실)에서 유급 사역자들 (7-8인)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일이나 주중, 시간을 내어 공동체의 유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해주시고요. 매주 섬기실 수도 있고, 한달에 한차례의 섬김도 가능합니다.

- 문의: 김윤진 자매 (어린이 사역코디)

9.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호)

10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업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Christensen Reception (오늘, 2-4pm @Columbia Room)

Dean Christensen 목사님께서 31년의 빌리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셨습니다. 빌리지 공동체를 위한 딴 목사님과 벅키 사모님의 노고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오후 2시 콜럼비아룸에서 마련됩니다.

2. 2018 선교 축제

◆ Preschool International Village (10/7(주일) @Adventureland)

오는 10월 7일(주일), 3-5세 아이들은 세상의 다양한 집들이 모인 "The Village"를 방문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의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Elementary Global Fair (10/14(주일) @Promiseland)

오는 10월 14일(주일), 초등부 아이들은 15개의 놀이 센터를 탐험하며, 만들기, 게임과 함께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 Prayer Breakfasts (10월 매주 화요일, 6:30-7:30am @IHOP)

10월 한달동안 매주 화요일, 선교 축제의 일환으로 기도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 Global Giving

빌리지는 여러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35개의 가정과 개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족 중 15명이 미전도 종족과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태어주시는 힘이 그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 후원: <http://villagebeaverton.com/outreach/>

3. 빌리지 대학

오늘부터 빌리지 대학 수업이 시작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등록: vu.villagebeaverton.com)

4. 남성부 성경공부 The Mountain (10/8, 매주 월요일, 7:15pm @Columbia Rooms)

-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Micah and Malachi (10월 8일부터 5주간)
- How context helps us get a clear understanding in telling God's Story(11월 26일 부터 3주간) (문의: Terry Larrea, terry.larrea@gmail.com)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오레건 주민투표 #2

아웃리치팀

오레건은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은 미국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레건주에 등록된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를 10월 중순경에 받게되고, 11월 6일 저녁 8시까지, 작성된 투표지가 곳곳에 비치된 투표함이나, 오레건 선거 관리 위원회로 도착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올해는 주지사,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주 대법원, 지방 법원, 일반 투표등 여러 항목의 결정을 유권자가 내려야합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5개의 일반 투표 항목중 찬반 의견이 있는 몇가지 투표 항목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안 105: 오레건 주의 Sanctuary (성역) 법의 폐지안

1987년 로컬,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행정 기관에 의해서 종종 일어났었던, 인종에 따른 수사 방식에 대하여 성역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레건 주의 경찰등을 포함한 행정 기관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사 및 구금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투표에 나오는 105법안은 1987년에 세워진 법을 폐지함으로써, 경찰등의 기관이 기관의 자금, 인원등을 연방 이민법 위반자의 조사 및 구금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세 명의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제안하여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지지 의견:

이 법안을 제안한 의원중의 한명인 에스키발 의원은 “지금이라도 오레건이 연방 법에 눈높이를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미국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합법적으로 시민이 되세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찬성자들은 오레건의 1987년 성역법이야말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경찰들이 공조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현명하지 못한 법이라고 합니다.

반대 지지 의견:

지역 신문은 논평에서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오레건 그리고 미국이 주는 자유와 기회를 위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오레건 주민도 매일 살가운데 삶의 질이 위협받고, 가족과의 이별이 올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키 CEO인 파커는 “나이키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가 나이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레건의 문화와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오레건의 성역법을 폐지한다면, 오레건과 그 명성에 나쁜 영향을 줄것입니다.” 컬럼비아 CEO 보일은 “오레건은 민족의 다양성으로 더욱 윤택해지고, 오레건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은 바로 오레건 가족, 커뮤니티, 직장 그리고 종교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105법안은 이러한 오레건의 가치와 맞지않습니다”라고 합니다.



CELEBRATION OF CULTURES

OCT 21, AFTER 11 AM SERVICE, GYM

FOOD | FELLOWSHIP

GET YOUR TICKETS BY OCT 15